

제 18대 회장 취임식



회원의 대변인으로 책임과 의무 다할 것!



▶이준동 회장 취임사

함께 그 길을 찾아가는 대변인이자 홍보요원으로 나서겠다”며 정부에 양계 생산자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의무를 다할 것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양계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전임회장의 공로패 증정과 함께 제 18대 회장단 소개와 이홍재 부회장의 협회 비전선포식, 협회기 인계인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회는 지난 20일 한국마사회 신관람대 컨벤션홀에서 청와대 민승규 농정비서관, 축단협 이승호 회장, 강문일 검역원장, 한국마사회 이우재 회장을 비롯한 관련단체 인사 및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8대 이준동 회장 취임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준동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무자조금의 원활한 해결책으로 진정한 생산자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한다. 회원 농가들과



▶이준동 회장은 취임사 후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건배 제의를 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과, 정우택 충북도 지사를 대신해 충북도청 김정수 농정 국장이 축사를 낭독했다.



▶전인 최준구 회장을 대신해 전 김선웅 부회장이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협회기를 인계인수 받은 이준동 회장이 깃발을 흔들며 힘찬도약을 선포했다.



▶제 18대 회장단-좌부터 이준동 회장, 최성갑(중계), 이홍재(육계), 천강균(채란) 부회장, 김익수 감사



▶준비된 다과를 함께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우리의 비전

하나. 우리 대한양계협회는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회원 모두의 뜻을 받들어 다같이 함께 나갈 것입니다.

하나. 우리 양계인은 스스로 완벽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가금티푸스 등과 같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은 물론, 나아가 경쟁력 있는 농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양계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한층 더 알리고 양계인들의 적극적인 단합과 동참으로 자조금사업을 확고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양계산업의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원종계 쿼터제와 종계DB구축사업은 1차 산업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2008년 3월 20일
전국양계인 일동